

300-3-096. 신문조서(姜達永 외 47명 치안유지법 위반) 8-2

■ 姜達永 외 47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내용 수록(문서 300-3-095 계속)

- 姜達永은 1910년 合併 이래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사회주의운동자와 交友하며 공산정치의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1925년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1925년 11월 신의주 공산당사건으로 검거자가 많아 운동이 약화되자 재건을 위하여 金在鳳 등과 협의하였고,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의 後繼조직을 획책하였다. 그리고 조선노동총동맹 상무집행위원 李準泰와 협의하여 공산당중앙기관을 비서·조직·선전으로 조직하고, 책임비서 姜達永, 비서 李準泰, 조직 李鳳洙·洪南杓, 선전 金綴洙로 정하고 사업진행을 협의했다. 2월 26일 3회 중앙집행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청년회에 개인 가입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李東輝 派와 제휴·연락하고 北風會 同化 노력과 조선독립 및 공산정치의 同一을 기하기 위하여 민족·사회운동자의 統一된 國民黨 조직을 전제로 天道教를 중심으로 하여, 혁명후원회(모폴) 회원에 고려공산청년회원 朴珉英 및 공산당원 具然欽을 임명하였다. 일본 上海 沿海州에 임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임원을 결정하였으며, 당원을 北風會, 勞動黨, 光州·平壤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고, 1926년도 예산 36만 3,800원을 計上하여 細目協定하였다.
- 6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북풍회, 火曜會,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을 해체하고 一團으로 하기로 하여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진용을 정리하였고, 조선공산당 기념일을 4월 17일로 하였다. 3월 15일 조직 변경과 부서 배정이 있었다. 政治, 經濟, 勞動, 농민운동, 지주 對 소작인, 소년문제, 衡平문제, 선전문제 등을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도록 했는바, 각각의 활동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 高允相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926년 8월 2일에 실시되었다. 具昌會 2회, 李浩·柳淵和·李奎宋·裴成龍 2회, 姜均煥·李承燁 2회, 李殷植 2회, 權五高·閔昌植·洪惠裕·朴來源 등도 8월 2일에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姜達永 10회, 權五高 2회, 金璟載·李炳立·廉昌烈·李智鐸·朴珉英 1, 2회, 洪惠裕 2회의 신문조사는 8월 3일에 실시되었다. 姜達永 11회, 權五高·李準泰 5회는 8월 4일, 李準泰 6회, 洪惠裕 3회, 趙東燮·金正奎는 8월 5일에 신문조사가 있었다. 姜達永 12·13회, 都容浩·朴珉英·洪惠裕 4회는 8월 6일에 조사하였고, 李鳳洙·朴一秉 3회, 權五高 3회, 金在鳳·金東富·金瑛禧 3회, 朱世竹 3회, 金昌俊 3회, 白基浩 3회, 李相薰 2회, 柳淵和 3회, 具昌會 3회, 南海龍 3회, 裴致文 3·4회, 權五尙 2회는 8월 7일에 신문조사를 하였다. 李敏行 3회, 全政珪 10회, 金正奎 3회, 金東富 4회, 金瑛禧 4회 신문조사는 8월 8일에 실시되었다.
- 다음에는 각자의 피의자 素行調書가 작성되었고, 姜達永 등은 즉결선고로 拘留(10~20일)에 처해졌다. 경찰의견서가 기록되어 있다.